

첫 번째 이야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예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을 함께 만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3-10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말씀을 깨닫고 기억해요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은 내가 읽기에 너무 어려워, 나중에 더 크면 읽어야지. 그때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한 적 있나요?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17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을 깨닫고 기억나게 해주시거
든요.


그때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
음대로 살 것인지를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

도록 마음 문을 열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
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문을 꼭 닫
아 잠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주
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알려
준 말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6:4

마음이 가난할 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울 때마
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해요.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이유가, 우리 안에 심술궂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주실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힘을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

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5:3

성령님을 믿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들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쌓인 말씀들을 꼭 필요한 때에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따라야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인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떤 열육

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갈라

디아서 1:16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면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10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따돌림과 놀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11

산상수훈은 '여덟 가지 복'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 1-10절을 읽은 후, 짝을 지어보세요.

- | | |
|----------------------------|--------------------|
| 마음이 가난한 사람 | • 땅을 물려받음 |
| 슬퍼하는 사람 | • 배부를 것임 |
| 마음이 온유한 사람 | • 위로를 받음 |
| 자비로운 사람 | • 하나님을 볼 것임 |
| 의를 위해 주리고 목마른 사람 | •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임 |
|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 | • 하나님의 자비를 입음 |
|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 •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임 |
|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 박해를 받는 사람 | |
- *박해 : 못살게 굴어서 괴롭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여덟 가지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